

형식은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 선형은 과연 자기를 사랑하여 주는가. 자기는 선형에게 ‘부분적이 아니요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는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하여도 선형의 자기에게 대한 태도는 냉담한 것 같다. 이 약혼은 과연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일까.

그날 저녁에 선형은 ‘예’ 하고 대답은 하였다. 그러나 그 ‘예’가 무슨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일까. 또는 ‘부모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명령대로 합니다’ 하는 뜻일까. 선형의 자기에게 대한 처지가 병국의 그 아내에게 대한 처지와 같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 난다. 만일 선형이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 하면 이는 불쌍한 선형을 희생함이라. 선형은 숙절없이 사랑 없는 지아비의 밑에서 괴로운 일생을 보낼 것이요, 또 형식 자기로 말해도 결코 행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의 일생을 희생하여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움이 인도에 어그러짐이 아닐까. 이에 형식은 선형의 뜻을 물어보기로 결심하였다.

그 이튿날은 마침 순애가 두통이 나서 눕고 선형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얻었다. 영어를 다 가르치고 난 뒤에 형식은 있는 힘을 다하여

“선형 씨,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하고 형식은 고개를 숙였으나 선형은 고개를 들어 형식의 갈라진 머리를 보고 의심나는 듯이 한참 생각하더니

“무슨 말씀이요?” 하고 살짝 얼굴을 붉힌다.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꺼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형식의 가슴은 자못 울렁울렁한다. 사생이 달린 큰 판결이 몇 초 안에 내리는 듯하다. 선형도 아직 이렇게 책임 중한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으므로 형식의 말에 무서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르면서 간단히, “예” 하였다. 약혼하던 날 대답하던 ‘예’와 다름이 없는 ‘예’로다. 형식도 더 말하기가 참 어려웠다. 또 그 대답이 무섭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형의 참뜻을 모르고 의심속으로 지내기는 더 무서웠다. 그래서 우선의 ‘사내답게’ 하던 말을 생각하고 기운을 내어,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선형 씨는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는 힘 있게 선형의 눈을 보았다. 선형도 하도 뜻밖에 질문이라 눈이 둥그레진다. 더욱 무서운 생각이 난다. 실로 아직 선형은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앓는가를 생각하여 본 적이 없다. 자기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다.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일 것이다. 아무쪼록 형식이가 정답게 되도록 힘은 썼으나 정답게 아니 되면 어찌하겠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한 일이 없었다. 형식의 이 질문은 선형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그래서 물끄러미 형식을 보다가

“그런 말씀은 왜 물으세요?”

“그런 말을 물어야지요. 약혼하기 전에 서로 물어보았어야 할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물어야지요.”

선형은 잠자코 앉았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다든지 아니라든지…….”

선형의 생각에는 그런 말은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미 부부가 아니냐, 그것은 물어서 무엇하랴 한다. 그래서 웃으며

“왜 그런 말씀을 물으세요?”

“하루라도 바빠 아는 것이 피차에 좋지요. 일이 아주 확정되기 전에…….”

“에? 확정이 무슨 확정입니까.”

“아직 약혼뿐이지, 혼인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잘못된 것을 교정할 여지가 있지요.”

선형은 더욱 무서워서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의 말하는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약혼했던 것을 깨트린단 말씀입니까?” 하는 선형의 눈에는 까닭 모르는 눈물이 고인다. 형식은 그것을 보며 이러한 말을 낸 것을 후회하였으나

“예. 그 말씀이요.”

“왜요?”

“만일 선형 씨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벌써 약혼을 했는데두?”

“약혼이 중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이 중합니까.”

“사랑이지요.”

“만일 사랑이 없다 하면?”

“약혼은 무효지요.”

선형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선생께서는?”

“저야 선형 씨를 사랑하지요.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요. 선형 씨도 저를 사랑하셔야지요.”

“아내가 지아비를 아니 사랑하겠습니까.”

형식은 물끄러미 선형을 본다. 선형은 고개를 숙인다.

“그것은 뉘 말입니까.”

“성경에 안 있습니까.”

“그렇지마는 선형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형 씨의 진정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아비를 사랑합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아내가 됩니까.”

이것도 선형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말에 형식은 놀랐다. 그것이 어찌하여 마찬가지로. 이 계집애는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할 줄을 모르는구나 하였다. 그래서 일언이폐지하고

“한마디로 대답해 줘시오……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소리는 얼마큼 애원(哀願)하는 듯하다. ‘아니요’하는 대답이 나오면 형식은 곧 죽을 것 같다. 꼭 다문 선형의 입술은 형식의 생명을 맡은 재판관의 입술과 같다. 선형은 이제는 머리가 혼란하여 더 생각할 수가 없다. 형식의 비참한 얼굴을 보며 다만 무서운 생각이 날 따름이다. 그래서 다만

“예!” 하였다. 형식은 한 번 더 물어보려 하다가 ‘예’가 변하여 ‘아니요’가 될 것이 무서워서 꼭 참고 갑자기 선형의 손을 쥐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마치 형식의 손

에 녹아 버리고 마는 듯하였다. 선형은 가만히 있다. 형식은 한 번 더 힘을 주어서 선형의 손을 쥐었다. 그리하고 선형이 마주 꼭 쥐어 주기를 바랐으나 선형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 형식은 얼른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왔는지 형식도 모른다. 선형은 인사도 아니 하고 형식의 나가는 양을 보았다.

- 이광수, 「무정」

4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관찰자의 태도를 견지하며 인물의 외양과 행동만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현재 사건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사건의 결과를 미리 밝히고 있다.
- ③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시각을 오가며 인물과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④ 두 명의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면서 한 사건에 관한 상반된 경험과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이야기의 주요 인물인 서술자가 특정 인물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그와 얽힌 사연을 회상하고 있다.

4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은 선형의 태도를 떠올리며 선형에게서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의심한다.
- ② 형식은 '그날 저녁'에 답한 선형의 '예'가 지닌 의미를 알지 못해 고민한다.
- ③ 형식은 선형과 단둘이 있는 기회를 통해 '선형의 뜻'을 묻는다.
- ④ 형식이 '그 이튿날'에 선형을 만난 이유 중 하나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 ⑤ 형식은 선형의 '마찬가지'라는 말에 감동하며 선형에게 연민을 느낀다.

47.

[A]에서 '형식'과 '선형'의 대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면서 상대방을 위선적으로 위로하고 있다.
- ② 풍자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③ 두 사람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상대에 대한 호감을 서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질문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의 생각을 확인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 ⑤ 상대방의 판단과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상대방의 사연을 경청하고 있다.

48.

<보기>를 참고하여 ㉠~㉡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무정」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 그에 따른 시행착오를 흥미롭게 그린 연애 소설이다. 연애 소설로서 「무정」의 면모는 형식이 약혼자인 선형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묻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형식은 자신을 향한 선형의 냉담한 태도를 걱정하면서 자신들의 약혼이 당사자의 자율성과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한다. 선형에게 던지는 형식의 거듭된 질문은 근대적 연애관에 기초한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질문을 받은 선형의 태도이다. 선형에게 형식의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질문'으로, 이 질문으로 촉발된 그녀의 반응인 무서움, 놀람, 혼란함 등은 이 질문이 근대적 교육을 받은 선형에게도 새롭고 낯선 것임을 환기한다. 선형의 "예"라는 답과 형식의 혼란스러운 귀가로 마무리되는 이 장면은 결혼과 남녀 관계에 관한 봉건적 가치관이 여전히 강고한 근대 초기, 개인의 자율성과 사랑에 기반한 근대적 연애관을 실천하며 겪는 당대 지식 청년들의 혼란과 갈등, 성찰의 모습을 반영한다.

- ① ㉠은 결혼이 부모의 결정이 아닌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성사되어야 한다는 형식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형식의 근대적 연애관이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② ㉡는 부부 관계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중시하고 있는 선형의 인식으로, 선형이 결혼과 남녀 관계에 관한 봉건적 가치관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군.
- ③ ㉢는 형식의 질문에서 받은 선형의 충격을 표현한 것으로, 결혼 상대방에게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근대적 교육을 받은 선형에게도 낯설고 이질적인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는 사랑 없는 혼인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함축한 형식의 말로, 개인의 자율성과 사랑에 기반한 근대적 연애관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는 형식의 질문에 대한 선형의 대답으로, 형식과의 대화를 통해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며 근대적 연애관을 수용한 결과 이군.

그렇건만 나에게서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다.** 입고 있는 코르텐 양복 한 벌이 내 자리옷이었고 통상복과 나들이옷을 겸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이백의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 내의다. **㉑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 밴드가 끼워 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어느덧 손수건만 해졌던 벌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㉒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걷은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칠크칠히면서 **영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하였다.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늑흐늑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형질이나 메밀껍질로 땡땡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뿐이고 하였다.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러나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씩의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나는 혼곤히 잠이 든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 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느니보다도 성가셨다.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해 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 버리고도 싶었다.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생활이 스스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중략)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팠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㉓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㉔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㉕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딱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늑흐늑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㉖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우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질름발이인 것이다. 내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논리)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辯解)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는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㉗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사전)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이상, 「날개」

4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과 개선 의지를, [B]는 관찰을 통해 환기하게 된 대상의 이미지를 서술하고 있다.
- ② [A]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물이 느끼는 위기감을, [B]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 회복하게 되는 사회적 존재감을 서술하고 있다.
- ③ [A]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인물의 내면 의식을, [B]는 외부 세계나 자극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서술하고 있다.
- ④ [A]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인물의 부정적 내면 의식을, [B]는 사회와 유리된 채 개인적 삶에 몰두하고자 하는 인물의 욕망을 서술하고 있다.
- ⑤ [A]는 가공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인물의 상상을, [B]는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는 반복적 일상에 대한 인물의 소회를 서술하고 있다.

50.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공간
- ②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공간
- ③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삶을 강요당하는 공간
- ④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채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공간
- ⑤ 상실한 삶의 의욕을 회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공간

5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소재의 속성을 통해 '나'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당황하는 '나'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 ③ ㉠: 과거의 삶을 떠올리기 두려울 정도로 괴로운 '나'의 내면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④ ㉡: '나'의 상념 속에 아내의 행동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
- ⑤ ㉡: '나'가 현재의 삶의 방식과 상이한 방식으로 살았던 과거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5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에리히 프롬은, 외부 세계로부터 느끼는 고독과 무력감이 주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지배하거나 이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복종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고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어떤 결단이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적 불안이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이들은 외부의 것에 대해 지극히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복종은 도피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들의 자아와 이들이 의존하고 있는 힘 사이에는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충동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충동을 느끼며 의존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수용지향적 인간에서 생산 지향적 인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 ① '아내는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아내'는 '나'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복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나'가 복종을 통해 외부의 것에 대해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군.
- ③ '나는 요만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는 외부 세계로부터 느끼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군.
- ④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자신의 자아와 자신이 의존하는 힘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였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한 번만 더 날아 보자 꾸나.'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수용 지향적인 인간에서 벗어나 생산 지향적인 인간으로 발전하려는 충동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웃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모시 진술 것어요, 머리에에는 탕건에 받쳐 죽영(竹纒) 달린 통영갓(統營笠)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발에는 크막하니 숨을 한 근씩은 두었음 직한 흰 버선에, 운두 새까만 마른신을 조마땅게 신고, 바른손에는 은으로 개 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이요, 왼손에는 서른네 살배기 묵직한 합죽선입니다.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다면 **일도(一道)의 방백(方伯)***일시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비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 착오를 일으키고, 동경·대판의 사탕 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인력거에서 내려선 윤 직원 영감은, 저절로 떠억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섶을 여미려고 하다가 도로 걸어 젖히고서,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매달린 새파란 염낭끈을 푼다.

“인력거 썩이(삿이) 뭣 푼이당가?” /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 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그저 처분해 줘사요!” / 인력거꾼은 담요로 팔짱 낀 허리를 굽실합니다.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향투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립니다. 후히 생각해 달란 뜻이지요.

“으응! 그리여잉? 그럼, 그냥 가소!”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꾼을 찢찢이 바라다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염낭끈을 도로 비끄러웁니다.

인력거꾼은 어떤 영문인지를 몰라 뚜렛뚜렛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굽적굽적하면서……

“그럼, 내일 오랍쇼니까?” / “내일? 내일 무엇 허러 올랑가?”

윤 직원 영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가뜰이나 긴장이 잔말을 씹힌대서 적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편 인력거꾼으로 당하고 보면, 무엇 하러 오다니, 외상 준 인력거 샅 받으러 오지요, 라는 것이지만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나요.**

그러니 말은 바른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 자못 난처한 판인데,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 직원 영감은 인제는 내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천천히 돌아서 버리자고 합니다.

인력거꾼은, 이러다가는 여느 때도 아니요,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 별이가 눈 멀뚱멀뚱 뜨고 그만 허사가 되지 싶어, 대체 이 어른이 어쩌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도, 그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좌우간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쭈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크게 과단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어, 샅 말씀이올습니다. 헤…….”

크게 과단을 낸다는 게 결국은 크게 조심을 하는 것뿐입니다.

“짜?” / “네에!” / “아니 여보소, 이 사람…….”

윤 직원 영감은 더러 역정을 내어, 하마 샷대질이라도 할 듯이 한 걸음 나섭니다.

“㉡…… 자네가 아까 날더러, 처분대루 허라구 허잖았녕가?”

(중략)

“해가 서쪽으서 뜨겼구나?” /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 멧 허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 “중학이 늬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꿈 쫓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 선 온 식구가 제각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윤 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멎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 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글트리고 앉습니다.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윤 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 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윽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가 몰라보고, 윤 주사네 서사 민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중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중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B]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멎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중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중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 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咆哮)를 합니다.

“……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으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㉔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
미가 좀 뵈긴 했어요!”

“그러머넌 참말이구나! 그러머넌 참말이여, 응응!……”

윤 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
니다.

“……그런 처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
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텨다
경찰서에 쟈혀? 응응?…… 오사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잣놈
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
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 윤 직
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
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더
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
숨 같던 말세(末世)년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
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
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
상이여? 응응?…… 제 것 지니고 앉어서 편안하게 살 태
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이, 더군다
나 왜 지가 멍멍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여, 응응?”

- 채만식, 「태평천하」

*방백: 조선 시대에 둔, 각 도의 으뜸 벼슬. 또는 '도지사'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5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시
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이 특정 행
동을 하게 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인물의 처지를, [B]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성품을 서술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의 과거 행적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B]
는 인물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⑤ [A]는 두 공간의 대비를 통해, [B]는 현재와 과거의 대비
를 통해 인물이 겪는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54.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 직원은 인력거에서 내린 직후 샴을 치르고자 인력거꾼에
게 샴이 얼마인지를 묻는다.
- ② 인력거꾼은 그냥 가라는 윤 직원의 말을 나중에 돈을 준다

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 ③ 윤 주사는 중학이 친 전보를 중학의 동무에게서 건네받아
윤 직원에게 전달한다.
- ④ 중학은 경찰서장이 되리라는 윤 직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
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
- ⑤ 윤 직원은 수령과 도적들이 과거에 사람들의 목숨이나 재산
을 위협했었다고 여긴다.

55.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
내고 있다.
- ② ㉒: 상대방이 말을 바꾸었다고 따지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상대방의 짐작과는 다른 용건이 있어서 찾아왔음을 드
러내고 있다.
- ④ 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데 따른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㉔: 상대방이 알게 된 일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5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 보기 〉

「태평천하」는 일제 강점기 친일 지주 계층에 속한 인물
을 이야기 속에 등장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풍자를 구현한
다. 서술자는 부정적 인물이 행하는 신념에 찬 언행들을 통
해 그의 왜곡된 세계관을 보여 준다. 나아가서 작품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논평을 드러내는데, 그 과정
에서 반어적 서술로 인물의 언행을 비꼬거나, 인물의 외양
을 위엄 있는 것처럼 묘사한 뒤 그와 상반된 특성을 부각하
여 인물의 품위를 추락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 또한 독자
들에게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논평하면서, 독자들을 자신과 가까운 위치로 끌어들
여 거리를 두고 인물을 바라보게끔 유도하기도 한다.

- ① 풍신을 '일도의 방백'과 같이 위엄 있다고 묘사한 뒤 그러한
묘사와 상반되게 '광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언급함으로
써 윤 직원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있군.
- ②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느냐
고 하는 서술에는 상대가 말을 똑바로 대고 할 수 없을 만큼
의 위엄을 윤 직원이 갖추지 못했다는 반어적 의미가 담겨
있군.
- ③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본다는 서술은 작품에 개입하
여 윤 직원의 지식수준이 높지 못함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논
평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윤 직원의 처지를 '진시황'이 '그의 자식 호혜'로 인해 나라를
잃은 상황과 비교하는 대목에서 진시황과 관련된 역사적 사
건을 알고 있는 독자는 서술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거리를 두
고 윤 직원을 바라보겠군.
- ⑤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
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냐는 말을 통해 일제가 조선 민
중을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고 믿는 윤 직원의 왜곡된 세계관
이 드러나고 있군.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 '나'와 B는 '곰'이란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내린 벌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한다.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나'와 B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중학 졸업반이 되던 해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했으나 B의 대결 신청으로 공기총 사격을 하다가 '나'의 귓바퀴에 상처가 남는다. 6·25 전쟁으로 셋은 헤어지게 되고, '나'는 새로 배속된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다. 그 후 B가 모반(謀反)* 혐의로 구속되고,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 지명된다.

① 흰 눈이 쌓인 산록(山麓)*의 바람 소리가 시리다.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일임에 틀림없다. 나는 권총 사격에 몇 점, 카빈*에 몇 점, 엠 윈* 소총에는 몇 점 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다. 더욱이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해 낼 도리가 없다.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전기 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 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을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것이다. 사실 그 경우의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興奪)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의 경우이기에…….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受刑)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B의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벗이었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에 얽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십 미터의 거리 전방에는 B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유언(遺言)이 없느냐고 물었다. B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다.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었다. 오늘도 이 숨 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B와 나는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와 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도 경악의 표정은 없다. 일체의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B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B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경희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를 전하여 주고파 했을 것이 아닌가.

다섯 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섰다. B의 손은 묶인 대로이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리어졌다.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형질의 표지가 햇빛에 반사되어 더 또렷하다. 헛기침 소리 이외에는 아무 입에서도 말이 없다.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B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희를 찾아갔다. 이 근래의 B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 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다.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 본 적이 없다. 내 삼십 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 왔다.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 막은 이 이상 더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나를 만난 경희는 시종 울기만 하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는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다.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하였다. 사변통에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B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B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餘燼)*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 마는,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으로 되지 못하였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詰難)도 못 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뻘뻘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B의 구명 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② 안전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가 산골짜기의 정적 속에 음산하다.

나는 무심중 귓바퀴의 상처에 손이 갔다. 호두 껍데기처럼 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어린다. 지나간 조각조각의 단상들이 질서 없이 한 덩어리로 뭉겨져 엄습해 온다. B와 경희와 곰과 공기총과, 견잡을 수 없는 착잡한 감정이다.

“겨누어, 총!”

구렁에 맞추어 사수는 일제히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B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겨누었다.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가슴의 구멍으로 내다 보이는 B의 심장 위에 어린다.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 본다.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 이 종언의 위기에 선 B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고…… 방아쇠의 차디찬 감촉이 인지(人指)의 안 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다. 내가 쏘지 않아도 다른 네 사수의 탄환은 분명 저 B의 가슴의 빨간 딱지 표지를 뚫고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쏘아!”

구령이 끝나기가 바쁘게 일제히 ‘뽕’ 소리가 났다.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여기 B와의 최후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의 대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방아쇠를 힘껏 당겼다. 총신이 위로 튕겨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을 뿐이다. 화약 냄새가 코를 쿡 찌른다. 그때는 이미 B는 **다른 네 방의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고꾸라졌다**. 극도의 빈혈이었다.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 가는가 봐요.”
눈을 떴다.

옆에 경희가 서 있다. 찬 수건으로 내 콧등의 땀을 닦아내고 있다. B와 나란히! 아니, B는 없다. 경희도 아니다.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까의 간호원이다.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몽한 속에서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 전광용, 「사수」

*모반: 국가나 군주의 전복을 꾀함.

*산록: 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

*카빈, 엠 윈: 개인 휴대용 무기의 일종인 소총의 이름들.

*여탈하다: 주거나 빼앗다.

*여신: 타고 남은 불기운.

57.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사물로부터 받은 감각적 인상을 활용하여 고조된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현재형 문장을 중심으로 한 서술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다른 인물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B]와 달리 [A]는 인물의 주관이 드러난 서술을 통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B]와 달리 [A]는 순차적으로 떠오른 상반된 심리를 서술하여 내면적 동요를 드러내고 있다.

58.

<보기>의 ㄱ~ㅁ은 윗글에 나타난 사건들이다. 이를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을 때 세 번째에 올 것은?

— < 보 기 > —

- ㄱ. B가 모반 혐의로 구속되다.
- ㄴ. ‘나’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다.
- ㄷ. ‘나’가 B의 사형 집행 사수로 지명되다.
- ㄹ. B의 발작적인 행동이 집 안에서 거둬지다.
- ㅁ. 경희가 ‘나’에게 자신의 선택에 관해 변명하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59.

㉠과 ㉡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가 유언으로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대변한다.
- ② 오랫동안 ‘나’가 B에게 느껴 왔던 서운한 마음을 상징한다.
- ③ ‘나’와 경희의 관계에 생기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를 제시한다.
- ④ ‘나’가 사수로 사형 집행 과정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암시한다.
- ⑤ 사형 집행장이라는 공간이 환기하는 황량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60.

<보기>에 제시된 ㉢, ㉣의 관점에 따라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사수」는 외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대결과 갈등을 거듭 겪고, 정확한 승패도 가늠할 수 없는 대결의 결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능적이고 숙명적인 대결 의식을 다룬 소설로 평가받는다. 한편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소설 속의 두 친구를 남과 북에 대응시켜 읽는다면, 이 작품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동포끼리 전쟁을 치르고 끝내 분단되어 버린 ㉣우리 민족의 현실을 ‘나’와 B의 관계로 형상화한 소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 ① ㉢: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하거나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B에게 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나’가 끝까지 본능적인 대결 의식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 B가 ‘다른 네 방의 탄환을 맞고 쓰러지자 ‘나’가 ‘그 자리에 비틀비틀 고꾸라져 버리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숙명적 대결이 외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충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 ‘나’가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확신할 수 없고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몽한’ 느낌을 갖는 것은, 두 친구에게 닥친 비극적 결말이 정확한 승패도 가늠할 수 없는 대결의 결과였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 ‘나’에게 B가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자 ‘이해관계를 초월’한 존재인데도 적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민족이 동포인데도 서로 전쟁을 치러야 했던 상황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 ‘나’와 B가 ‘의식적인 적대 행위’라기보다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때문에 대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겪은 전쟁과 분단의 원인이 당시의 국제 정세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 한다고 볼 수 있겠군.

[앞부분 줄거리] 1960년대 초 판문점에서는 남북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의를 이루어졌고, 다른 외국인 기자들과 함께 이 현장을 취재하던 진수는 그곳에서 북한 여기자를 만나 대화를 한다.

“참, 저 남북 교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또 이렇게 물었다.

[A] “네? 교류요? 글썄…… 결국 이렇죠. 지금 당신하구나하구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참 간단하게……. 그러나 이런 걸 고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런 투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박하구 낙천적인 생각이지요, 우리의 경위라는 것은 조금 더 착잡해요, 결국 객관적인 조건이 문제지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세의 리얼리티를 리얼리티대로 포착하는 것…… 참 리얼리티라는 말은 모르겠군.”

진수는 얘기가 신명이 나지 않는 듯 뜨적뜨적 이렇게 말하곤 씩웃었다.

“사실주의의 그, 그것 말이지요?”

“네, 네, 결국 그런 것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민족의 양식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요새와 선 좀 변모를 했어요. 현실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자 그녀가 달래듯이 말했다.

[B]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도 복잡하지도 착잡하지도 않아요, 지극히 간단하지 않아요? 당신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간단하지요, 패배 의식과 우유부단은 못써요, 문제는 간단한 걸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대들어요.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야요.”

“그러나 경우로서의 타산이 있어요, 그런 본질론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건 당신들로서의 경우이고 이편 경우는 또 이편 경우거든요, 이편 경우의 내력이 또 있어요, 철저한 현실주의가 작용하는 거지요. 사실상 막 하는 말로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측면 아시지요?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야겠군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방법에 불과해요.”

그러자 그녀는 두 눈을 깜짝깜짝했다.

“요컨대 피할 까닭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의 표준이라는 걸 어디다가 두고 계시나요? 어느 특정된 개인의, 혹은 집단의, 감정적인 장애라든가 타성에서 오는 고집이라든가 우선 그런 건 제거되어야 하지 않아요? 선택할 권리는 묻혀서 사는 일반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주어야 해요.”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좀 강렬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진수가 응했다.

[C] “그렇지요,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지요, 아무렴요. 당신들은 줍니까, 당신들 세계에서 자유라는 건 어떤 양상을 지니는가요? 자유조차 강제당하는 건 아니요? 설사 그것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선택된 몇 사람의 일정한 양식으로서의 옳은 강제라고 가정하더라도 말이지요, 팍팍하고 죄여 오고……. 어때요? 거기서 견딜 만해요? 솔직히 말하세요.”

진수는 조금 신랄한 데를 찌른 듯하여 ㉠비죽이 웃었다.

그러자 그녀는 발끈했다.

[D] “신념이 문제지요, 자유는 허풍선과 같은 허황한 것일 수가 없어요. 자유의 진가는 일정한 도덕의식과 결부가 되어서 비로소 발휘되는 거지요,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해요, 빛 좋은 개살구지요, 우리의 모랄의 기본이 뒤틀린지 아세요? 우리 전체가 나갈 바 방향이야요. 개인은 거기 한테 엉켜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자유야요, 결국 신념이 문제지요, 당신의 생각은 나태그것이야요, 타락되고 싶다는 말밖에, 놀고 싶다는 말밖에 아니야요, 자유에 대한 옳은 인식도 없고 일정한 신념도 없고, 있는 것은 임시 임시 그날그날의 자기와 희부연 자기밖에 없어요, 비트 적거리고 주저앉고 싶은 자기…….”

“그럼 자기를 팽개치고 무엇이 남아요? 놀고 싶고 나쁜 짓하고 싶은 자유란 최고급이지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것을 크낙한 관용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있어요. 부피와 율동이 있는, 그런 것이 적당히 용서가 되면서도 전체로 균형이 잡혀 있는…… 참, 어느 것이 허풍선이나 따질까요? 자기조차 팽개쳐 버린 신념덩이가 허풍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자기를…….”

“천만에, 자기가 없이 어떻게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왜 팽개쳐요? 완벽하고 명료한 자기는 신념에 밀받쳐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흐늘흐늘하고 비트적거리는 자기의 검불만 남아요, 그리고 당신의 자유에 대한 견해도 썩어빠진 거야요, 한마디로 썩어 빠진 거야요, 썩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가……. 어마아, 고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E] “있지요, 있구말구,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부피와 깊이는 한이 없어요, 당신들은 사람도 어떤 효율의 데이터로 간주하구 있어요. 당신들 사회에서의 모랄의 질(質)이 대개 짐작이 되는데 일면적인 거지요.”

“아니야요, 다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다급해 있다 뿐이지요. 원인은 그것뿐이야요.”

“참 도스토옙스키나 셰익스피어를 아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약간 자신을 회화화하여 놓고 필요 이상으로 비장한 몸짓을 하는 도시 소시민의 사변 철학이고,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는…… 시민 사회가 싹트기 시작하는 사회의 여러 모를 부피 있게 부각시켰어요.”

“무서운 추상이로군.”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요 본질이 그래요, 세부에 구애되지 말고 큰 윤곽으로 포착해야 해요.”

마침 좀 전의 그 외국인 여기자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오우 원더풀’ ㉢히죽 웃으면서 이런 표정을 했다. 그리하여 잠시 얘기가 끊겼다. 좀 뜸하다 했더니, 좀 전에 요란스럽게 지껄이던 안경잡이와 그 ‘누님’께선 같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 누님은 그냥 키들거리고 웃었다. 회담 장소 건너편 쪽 처마 밑에서는 양편 사람들 대여섯 명이 우르르 붙어서 실랑이질을 하고 있었다.

[가] 들려다보이는 회담은 바야흐로 서릿바람의 도가니였다. 납치한 어부들을 당장 송환하라는 것이었다. 기본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자상한 내용은 들리지 않고 그저 스피커 소리가 귀에 윙윙하기만 했다. 저편은 울부짖고 이편은 전혀 무관심의 표정이고, 이편이 울부짖으면 저편엔 섬세한 야유조가 지나가고, 드디어 저편에선 책상을 두드리고, 순간 맞은편에 앉은 이편 사람은 시끄럽구먼, 왜 이리 야단이며, 이쯤 조금 어리둥절한 눈짓을 하고, 비로소 스프링이 달린 쇠붙이 의자를 한번 들썩이고, 헛기침을 하고, 푹푹히 들으란 말이여, 별로 쓸모없는 소리지만, 이렇게 미리 다지거나 하듯이 상대방을 일순간 맞바로 쳐다보고, 그리곤 내리읽고…… 이번엔 스피커에서 영어가 울리고…… 서릿바람이 일고…… 이런 것의 연속이다.

(중략)

동편 쪽에 세로 섰던 빛기둥도 어느새 사라지고 더욱 어두워졌다. 비로소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조용해졌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혹은 들판을 내다보았다. 그러고는 정신을 차리듯이 수선대였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 생철 지붕이 와당와당 와라랑 하자 울부짖던 스피커 소리가 아득해졌다. 망 위엔 보얀 빗물 안개가 서리고 하늘과 땅이 그대로 굽은 물줄기로 이어졌다. 순간 회담 장소 안에 앉은 사람들도 일제히 밖을 내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하, 굉장한 **소나기**군, 모두 이렇게 들 생각하는가 보았다. 그 놀랍도록 일률적인 표정이 기묘한 역설을 의식하게 했다. 늘어진 경비원들이 처마 밑이나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 서고, 둘레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급기야 이리저리 엇갈리며 괴이한 소리를 내지르면서 막사로 뛰기 시작했다. 그 필사적인 분위기가 전염이 되어 모두가 **와르르** 헤쳐졌다. 순간 진수는 덤석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화닥닥 놀란 김이라 손을 잡힌 채 같이 뛰었다. 앞에 지프차가 가로 섰다. 진수는 그 문을 열고 그녀를 올려 앉혔다. 그녀는 같이 뛰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딱히 모르고 덮어놓고 올라탔다. 진수도 곧 지프차에 올라타자 문을 닫고 문고리를 채웠다. 어마아, 비로소 그녀는 이런 표정이 되더니 문을 열고 와락 나가려고 하였다.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온 상판이 무섭게 찌그러지며 사무친 애걸 조로 바라보았다.

“안심해, 그런 차니까.” /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무슨 암시나 받은 것처럼 **와르르** 피어나듯 웃었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아직 어느 쪽 차인지 알지 못했다.

- 이호철, 「판문점」

61.

[가]와 [나]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회상의 형식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주관을 배제하고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작중 분위기가 전환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서술자가 직접 관찰한 장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특정 사건을 여러 서술자의 관점으로 전달하여 사건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2.

소나기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담장의 긴장된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② 회담장 안과 밖의 상반된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③ 회담장의 차가워진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 ④ 회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된다.
- ⑤ 회담장 안을 바라보는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63.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1961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를 완화하고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판문점은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 남북한의 대표가 회의를 하는 장소이지만, 판문점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에서는 남북 대표가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의 근본 원인은 남북의 지식인을 표상하는 진수와 여기자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특히 이들의 ‘남북 교류, 자유와 정의, 정치 체제’ 등에 대한 논쟁은 남북이 분단된 사이에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작가는 남북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회의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만 마침내 화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려 하였다.

- ① [A]에서 진수는 남북 교류를 통한 관계 회복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군.
- ② [B]에서 여기자는 남북의 화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남북이 교류에 적극 참여할 때 마침내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낙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 ③ [C]에서 진수는 사회가 추구하는 역사적 전망이 옳다면 이를 위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고 주장하며, 북한에는 모든 이에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여기자의 말을 비판하고 있군.
- ④ [D]에서 여기자는 무제한적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보다 신념의 수호를 위해 일정한 자유만보장하는 정치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북한 정치 정체의 우월성을 제시하고 있군.
- ⑤ [E]에서 진수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무시한 채 인간을 마치 도구처럼 효율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북한 사회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군.

6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신이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 ② ㉡은 상대방에게서 발견한 자신의 문제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③ ㉢은 남북한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본 외국인의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 ④ ㉣은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을 생생히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⑤ ㉣은 자신의 상황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안도감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그는 ㉠설사기 때문에 일찍 잠이 깨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 보려고 했다. 그러나 배가 뒤끓으면서 벌써 향문이 움찔거리서 견디어 낼 수가 없었다. 휴지를 챙겨 들고 변소로 갔다. 어제저녁에 먹은 구아니딘이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다.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는 자기의 배앓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과식을 했다거나 기름진 것을 먹은 적도 요 며칠 안엔 없었다. 있었다면 좀 심한 심리의 긴장 상태뿐이었다. 신문에서 자기의 연재만화가 요 며칠 동안 이따금씩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쁜 예감으로 불안해 있었던 것이다.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 하고 생각하며, 그래도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 문화부장은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그것을 보고 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곁곁거리고 나서,

“좋습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문화부장의 태도에 다분히 과장이 섞인 것을 보면서도 역시 겨우 안심을 하고 묻는 것이었다. / “㉢오늘 치는 빠졌더군요.”

그러면 문화부장은 안경을 벗어서 양복 깃에 닦으면서, / “아, 기사 폭주 관계입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이상 더 물을 수가 없어서 그는 자신을 안심시켜 가며 데스크 위에 흐트러져 있는 경쟁지들과 일본에서 온 신문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배달된 유인물을 대강 훑어보고 나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다음 날 아침 신문을 보면 또 만화가 빠뜨려진 채 배달되곤 했다. 오늘도 기사 폭주 때문일까 하고 문화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썩 대단한 기사들이 실린 것도 아닌 데다가, ‘그렇다면, 그건, 만화가 꼬박 꼬박 나올 때엔 한 번도 기사 폭주가 없었던 말인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예감처럼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문화부장은 그에게 차나 한잔하자며 다방으로 데려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다. 그는 다른 신문사에 만화 연재를 부탁하려 하지만 그곳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을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말입니다.” /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훈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예요, 총대를 쥐지 않으니까 말이지요,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 그는 취해 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아마 그때 총대를 쥐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들 앉아 있겠지요?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남들은 편하려니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까?” / 김 선생이 말했다.

“술이 없으면 말야…….” / 그들의 뒤쪽에 앉아 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쳤다.

“인생이란 말야…….” / “허, 또 나오시는군.”

“허,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젠 술 끊어야겠어.” / 누군지가 소리쳤다.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

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눈알을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찾값을 앞질러 내 버리던 그 키가 작달막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 줬었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뒤통수 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차나 한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 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헤헤,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이 방금 비워 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뭔가 생길 테지.”

김 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얼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 X 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아톰 X 군’, 차나 한잔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쭈셨기 때문이다.

“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협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이었던 군……. 미안하다, ‘아톰 X 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 X 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톰 X 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의 광대하고.” /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 있게.” /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김 선생이 부축해서 태워 준 택시를 타고 그는 집으로 왔다.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다. 그는 택시에 탈 때 김 선생이 쥐여 준 서류용 봉투를 택시에서 내릴 때 그대로 두고 내렸다.

“또 술을 먹고 와서 미안하오.” /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꼭 취하셨네요.” /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 경충거리듯이 뛰어나왔다.

“배 아프시던 건 좀 어떠세요?” / “클로로마이신을 먹었어. 클로로마이신을 말야. 흥터가 있더군.”

“어디에 흥터가 있어요?” / “어디긴 어디겠어? 클로로마이

신에지.”

“㉔정말 취하셨어요.” 아내는 그를 이불 위로 눕혔다. 옆방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 그가 말했다.

아내는 자기의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방귀 소리가 둔하게 벽을 흔들며 들려왔다. / “㉕그래도 별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센데요, 네?”

[A] 아내가 킬킬거리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만해 두자, 아내야.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하하하하……?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 아주머니가 지금 무안해하고 있나 보다.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 돌려요.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는 없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 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던 영감을 생각하였다.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돌려요, 어서, 돌려요. 그사이에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흥,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하며 입술을 삐죽 내민 아주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재봉틀 소리를 죽여야 할 거까지는 없습니다. 돌려요, 어서요.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㉖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서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그는 아내를 껴안고 있는 자기의 팔에 힘을 주었다.

- 김승옥, 「차나 한잔」

65.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밖 서술자가 이야기 속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② 이야기 속 인물이 다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속 인물의 속앓이와 이야기 밖 서술자의 진술이 구분되지 않고 서술되어 있다.
- ④ 이야기 속 인물과 이야기 밖 서술자가 하나의 사건을 상반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⑤ 이야기 밖 서술자가 이야기 속 여러 인물의 시선에 초점화하면서 사건을 제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6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자신이 아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
- ② 아내는 ‘그’가 또다시 술을 먹고 귀가한 사실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③ ‘그’는 자신이 만화 연재를 부탁했던 다른 신문사의 문화부장에게 무안을 당했다.
- ④ 김 선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를 격려하고 있다.
- ⑤ ‘그’는 문화부장이 자신의 만화가 실리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67.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상대방의 반응과 상반된 상황에 대한 의문이 담김.
- ② ㉒: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담긴 이면적 의미를 이해함.
- ③ ㉓: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함.
- ④ ㉔: 상대방이 한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담김.
- ⑤ ㉕: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68.

〈보기〉를 바탕으로 ㉑~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1960년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경제적 효용성이 담보되지 않는 일들은 우선순위가 밀려 도태되거나 배제되었으며, 이와 같은 시류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실함만으로는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가 되었다. 또한 인정과 배려로 맺어진 전통적 인간관계는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현실에서 비정함으로 변질되었다. 사람들은 전통적 인간관과의 결별을 통해 새로운 현대적 인간성을 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불안 심리를 갖게 되었다. 「차나 한잔」은 이와 같은 당대인들의 불안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 ① ㉑은 ‘그’의 연재만화가 신문에 실리지 않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당대인들의 불안 심리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㉒은 다른 기사들에 밀려 신문에 실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도태되거나 배제되는 일들의 예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㉓은 ‘그’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인간관계가 지닌 미덕이 현대적 인간관계의 비정함으로 변질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㉔은 사회에서 도태된 ‘그’가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인간관과의 결별을 통해 당대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현대적 인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㉕은 신문사에서 해고되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가 된 ‘그’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군.

[앞부분 줄거리]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 탈락,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인해 남모름 곤욕을 치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등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병증을 앓게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에게 상담을 받게 된다. 손 박사는 일섭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며,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는 사고의 전도, 즉 도착된 욕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제게 그런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장애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그쯤 이르고 보면 일섭은 이제 제풀에 질문을 멈출 수가 없어졌다. 그리고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러한 일섭을 환영했다.

“그야 ㉠윤 형의 질문 가운데에 해답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 형의 참욕망을 윤형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선 윤 형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편스런 **쇠창살**부터 지워 없애야 할 겁니다. 윤 형의 마음 가운데에 쇠창살이 남아 있는 한 윤 형에게는 언제나 안과 밖의 구분이 남아 있게 마련이고, 그 안과 밖이 뒤바뀌는 도착 현상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글썄, 이 세상일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여기다 저기다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윤 형은 은행 쇠창살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바깥 사람들의 한 부분으로 그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셈이며, 그와 반대로 윤형이 지금 그 바깥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고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오히려 쇠창살 안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일엔 지금 윤 형한테서처럼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윤 형이 지금 서 있는 곳 그곳이 창살의 안이거나 바깥이거나 윤 형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요, 윤 형의 그 자유와도 또한 함께 있는 것이예요.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은** 다만 그 윤 형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쇠창살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그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현실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학교의 문이나 은행 창구 같은 데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만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만 인정한다면 그건 물론 병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윤 형은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 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그 윤 형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이라는 데는 사실 쇠창살이 없습니다. 혹 그런 데가 아직도 남아 있는진 모르지만 적어도 윤 형네 은행 점포 창구는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한 데도 윤 형은 은행을 말할 때마다 늘 그 창구의 쇠창살을 보고 있었어요. 그건 그 은행 창구가 아니라, 윤 형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쇠창살의 환영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옛 직장을 찾아가 창구의 모습까지 다 확인해 놓고 있었다. 못 당할 위인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과장해 받아들이고 있는 쇠창살의 존재부터 부쉬 없애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안과 바깥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 보라는 충고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일섭이 차츰 자신의 병태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적 유희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인 태도였다.

“그건 따로 염려할 일이 못 돼요. 윤 형에게 늘 그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 형은 누군가가 윤 형을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자기 도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윤 형은 그런 불안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점은 아까도 설명했지요. 그런데 윤 형의 그런 자기방어 욕망이 윤형에게 다른 일에서도 늘 그랬듯이 정면으로 뚫뚫하게 표현되질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이 고통을 먹고 낭패를 겪는 것을 보고 윤 형은 그 자기방어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었던 격이란 말입니다. 쇠창살에서부터 비롯된 이차 병증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윤 형의 노력으로 그 마음속의 쇠창살이나 안팎의 도착증이 제거되고 나면 그런 외형적인 증상은 저절로 자취를 감추어 가게 될 겁니다.”

시일이 지나다 보니 손 박사의 말은 상당량 사실로 증명되어 가는 부분이 있었다.

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의 쇠창살을 뽑아내는 데에 그런대로 정직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 박사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과 밖의 경계선을 지우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손 박사의 장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차츰 자취를 감춰 가자 그의 유희욕 역시 제풀에 점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날처럼 불안스런 생각도 덜했고, 더군다나 누군가 주위 사람을 골려 주는 따위의 장난에는 흥미나 쾌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 갔다.

그러자 어느 날 손 박사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으로 와서 자기를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일섭은 입원 때처럼 별 군소리 없이 그날로 곧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손 박사의 당부대로 며칠씩 만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 그를 만나곤 하였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퇴원 후에 몇 번째던가 병원으로 그 손 박사를 찾아가 만난 날이었다. 손 박사는 그날 일섭을 보자 이제 모든 게 잘되어 가고 있다면서, 뭇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경원* 소풍이라도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친절한 충고를 덧붙였다. 손 박사로서 그쯤에서 아마 일섭의 치료 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손 박사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일섭으로서서는 어쨌든 고마운 조언이 아닐 수 없었다. 오랜만에 바람이라도 좀 쐬 겸 **창경원** 문을 들어선 일섭은 거기서 비로소 손 박사의 음흉스런 음모를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 손 박사의 교묘한 음모에 감쪽같이 속아 온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중략)

㉣사자 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 행여 녀석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거나 않을까 걱정스러운 듯 한결같이 거동들이 조심스러웠다. 녀석이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거나 한 것처럼 녀석 앞에선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거나 아예 입을 다문 채 숙연스런 표정으로 침착스레 우리 앞을 지나갔다. 어쩌다 녀석과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 쪽이었다. 그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녀석 쪽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격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은 앞서의 원숭이 우리 앞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거기서도 구경을 하는 쪽은 사람이 아닌 침팬지 쪽이었다. 원숭이들은 제 맘대로 짓궂은 장난질을 피워 대며 사람들을 골려 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원숭이들의 조롱을 받고도 모욕감조차 느끼지 못한 채 바보처럼 히히거리고 있었다. 원숭이 우리 앞에선 바보처럼 멍청하게 웃고만 서 있던 사람들도 이 **등골이 섬뜩거리는 맹수류 앞에서는 감히 그럴 수조차 없는 꼴**이었다.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쉬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없는 거짓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 울타리 안의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선 커다란 각성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에랴.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란 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피어 댈 셈이었다.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꾀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더구나 그 **우리 너머 짐승에 대한 그의 정당한 분노**를 아직도 제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수지 못한 병태의 하나라 단정하려 든다면, 그건 사람과 축생의 위신을 뒤바꿔 놓으려는 손 박사의 무서운 배신일 수 밖에 없었다. 녀석을 결판내 놓고 말겠다는 일섭의 단호한 결의는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 버린 그 가학성 유희욕 같은 것일 수는 도저히 없었다.

- 이청준, 「황홀한 실종」

*창경원: 일제 강점기에, 창경궁 안에 동·식물원을 만들면서 불렀던 이름.

69.

[A]에 나타나는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섭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손 박사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 ② 손 박사는 일섭의 사고방식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섭의 반박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③ 일섭은 손 박사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손 박사가 언급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④ 손 박사는 과거에 나누었던 일섭과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일섭의 발언이 지닌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손 박사는 권유에 가까운 방식을 활용하여 일섭이 착각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일섭의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7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손 박사는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실로 가정하는 일섭의 말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② ㉡: 손 박사는 일섭이 곤란한 것으로 여기는 병증에 대해 해결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 손 박사는 자신의 진단과 처방이 일섭에게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했었군.
- ④ ㉣: 사자 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일섭의 입장을 알 수 있군.
- ⑤ ㉤: 손 박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쇠창살을 일섭 자신에게는 부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보는 데서 기인한 일섭의 적개심이 드러나는군.

71.

창경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섭이 귀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장소이다.
- ② 손 박사와 일섭 사이에 촉발된 갈등이 일섭의 바람대로 해결되는 장소이다.
- ③ 일섭을 다른 방식으로 치료하려는 손 박사의 의도가 결국 성공하는 장소이다.
- ④ 자신을 상담해 왔던 손 박사에게 대한 일섭의 신뢰감이 깨지는 계기가 되는 장소이다.
- ⑤ 가학성 유희야말로 일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망을 깨닫게 되는 장소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황홀한 실종」에서 윤일섭에게 쇠창살은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인 안쪽과 그로부터 쫓겨나 떠돌아야 하는 이들의 공간을 확고하게 이분하는 일종의 분계선을 의미한다. 안팎에 대한 일섭의 분리는 분계선 안쪽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지지만, 손 박사와 같은 타인에게 일섭의 욕망은 반대로 바깥 세계를 열망하는 것과 같이, 도착된 것으로 파악되고 만다. 손 박사의 생각과 달리 선 안쪽의 공간으로 들어가 안주하기를 바라는 윤일섭은 기성 체제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 현실에 순응해 살아가는 모습과 더불어 추방과 배제에 대한 불안이 겹쳐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한다.

- ①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이 마음속 ‘쇠창살’이라는 박사의 말을 고려할 때, 일섭이 세계를 구분하는 일종의 선을 의식 속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등골이 섬뜩거리는 맹수류 앞에서는’ 웃지 않는 이들을 보며 구경의 대상이 실은 우리 안의 동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을 볼 때, 일섭이 기성 체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으로 쇠 울타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볼 때, 일섭이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 떠돌게 되는 것과 같은 배제에 대한 불안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안락한 보호’를 바라는 일섭의 분계선 안쪽에 대한 욕망을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 형의 참욕망’과 같이 도착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때, 손 박사가 환자인 일섭의 증세를 당사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우리 너머 짐승에 대해 분노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일섭이 분계선 안쪽에 대한 욕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근래는 색다른 풍속이 생겨 무섭증이 덜했다. 그냥 밥만 내려 주는 게 아니고 도깨비를 불러 몇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다.

“다리 밑에 도깨비들!” / “어이.”

제주가 큰 소리로 부르면 다리 저쪽에서 대답한다. 미리 뽑아 거기 보내 놓은 녀석들이 도깨비 목소리로 가성을 써서 대답하는 것이다.

“그동안 잘들 있었는가?” / “어이, 잘 있었네. 동네도 별일 없는가?”

“덕분에 동네도 별 탈이 없네. 금년에도 당제 지내고, 자네들 밥을 가져왔은게 차린 것은 없네마는 밥은 많이 가져왔은게 싸우지들 말고 오손도손 나눠 묵소.” / “고맙네. 맛있게 묵을라네. 킬킬.”

“요새 와서는 자네들도 철이 들었는가 으쨌는가, 다리 밑에 불도 안 쓰고 사람 흘려 가는 일도 없고, 그런일은 영판 잘한 일이네. 이 뒤로도 그런 짓은 하지 말게.”

“어이, 잘 알았네. 그렇지만 동네일에 뼈뺏하게 구는 녀석이 있으면 옛날 한몰 영감 꾀고 땡기대끼 산으로 들로 꾀고 땡기다가 바위틈에다 꼼짝 못 하게 끼워 놓 것인게 안심하지 말게. 킬킬킬.”

“어이. 우리도 조심할란게 그런 짓은 함부로 하지 말게. 그런데 이번에도 자네들한테 몇 가지 부탁이 있네. 이런 말은 자네들한테 할 말이 아니네마는, 금년에도 쌀값이 말이 아니라 농촌 사람들은 죽을 맛이네. 그 쌀값 매기는 작자들 말이여, 그 작자들이 어떤 작자들인가 쪼깐 알아 갖고, 그 작자들을 옛날 한몰 영감 꾀고 땡기대끼 방방곡곡 꾀고 땡김시로 농촌 실정이 으짤가 한번 구경을 시켜, 그 작자들 눈탱이를 각 쥐어박아 불란게 꾀고 땡길 적에는 우리 동네도 꼭 한번 꾀고 오게.”

“알았네. 그 작자 꾀고 땡김시롱 반 죽여 놓든지, 바위틈에 끼워 놓든지 할 것인게, 그리 알게.”

“이 작자들이 농촌 사람들하고는 무슨 웬수가 졌는가 으쨌는가. 즈그덜이 맨드는 텔레비·냉장고·전기다마·농약, 이런 것은 즈그들 기분 내키는 대로 값을 매김시로 말이여, 으쨌서 촌놈들 쌀값은 농사짓는 사람 따로, 값 매기는 사람 따로냐 이 말이여? 무식한 놈 문자 속은 몰라도 말귀 돌아가는 짐작은 있더라고, 우리도 테레비를 본게 알 만한 것은 대충 짐작을 하느디 말이여. 즈그들이 맨드는 그런 물건들은 수출까지 해서 재미를 보고, 또 다른 나라 것을 절대로 수입을 못 하게 해 놓고 즈그들 것만 팔아서 두 벌 시벌로 재미를 보거든. 그런데 으쨌서 쌀값이나 쇠고기값은 그것이 쪼깐 올라서 촌놈들이 재미를 불라고 하면 그런 것은 수입을 하나 이 말이여?”

[중략 부분 줄거리] 댐 건설로 인해 마을이 수몰될 처지에 놓이자, 마을을 지켜 준다는 당나무에 욕심을 낸 외부인들은 이를 사기 위해 마을에 와 흥정을 벌인다.

“제 지내 오시던 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댐에 물이 차면 그때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듯이 당산 할머니도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나무도 빈집이나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썩고 말 텐데, 그냥 그렇게 썩는 것보다 목물*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오래 남을 테니 당나무로 보

더라도 그게 한결 낫겠지요.”

“㉠허허. 남의 동네 당나무를 그렇게 염려해 주다가는 이 동네 강아지도 널부터 금목걸이 걸고 나서겠구만.”“그렇게 편잔만 주실 일이 아닙니다. ㉡호랑이도 죽으면 박제를 해서 잘 보이는 데다 진열해 놓지 않던가요. 그런 이치라 생각하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럼 자네는 자네 할무니도 돌아가시면 호랭이맨키로…….”

다음 말은 너무 심하다 싶었던지 영감은 말을 삼키며 끄매듬힘만 썼다. 목물 장수도 허허 웃었다.

“어서 가게. 그런 입 더 놀렸다가는 지벌*을 맞아도 크게 맞아. 장사하는 사람이 괜한 지벌 입지 말고 어서 돌아서!”

“수몰 지구에서 당나무를 많이 사 와 봤으니 말씀입니다마는,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섭섭하시다면 20만 원 더 얹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가라면 갈 일이제 지벌을 못 맞아서 어디가 많이 근질근질한 모양이네. 지벌을 때리기로 하면 못 때리는 데가 없어. ㉢자동차 바꾸는 그것이 최고 고문께 거기는 못 때릴 것 같아?”

낮짜이 양푼 밑바닥으로 유들유들하던 목물 장수도 이 악담에는 눈을 흘겼다.

며칠 뒤 또 한 사람이 왔다. 이 작자는 동백나무나 모과나무 같은 나무만 보고 다니는 게 목물 장수가 아니고 정원수 장수인 듯했다. 한참 동네를 싸대고 다니더니 이 작자도 당나무에 군침을 삼켰다. 자기는 30만원을 더 얹어 백만 원에 귀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그걸 파 가자는 것은 아니겠고 역시 그런 속으로 목물점에 되팔아 넘기자는 수작인 듯했다.

“허허. ㉣말 죽은 원통보다 체 장수 물려드는 것이 더 속상하다등마는, 동네가 망조가 든게 체 장수에 갖바치에 벼라 별 종자들이 다 피어드는구만.” / 이 작자는 더 물풍스럽게 내쫓았다.

“돈이 백만 원이면 그 돈이 얼마디 그러시요? 거기다가 윗 당나무도 끼워 팔면, 그것도 7, 8십만 원은 받을 텐게 그러면 2백만 원 가까운 돈이다. 저절로 굴러 들어온 돈을 발로 차 넘기잔 말이구만이라.”

삼식이라는 젊은이였다. / “뭣이 으짜고 으쨌? 물에 안 잠기는 윗 당나무까지 폴아묵자고?”

자리실 영감이 담뱃대를 내지르며 고함을 질렀다.

“이런 일은 그렇게 외곶으로만 생각하실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장도 덩달아 삼식이 편을 들고 나섰다.

“당나무가 물에 잠기면 당산 할무니도 나무에서 떠나고 말 텐게 아랫 당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윗 당나무도 동네 있고 당나무 있제 동네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느디, 당산 할아버지는 거기서 무얼 하실 것이요? 동네도 없는 당집에서 당산 할아버지가 무슨 중이라고 염불을 하실 것이요. 강태공이라고 낚시질을 하실 것이요?”

“허허. 아무리 동네가 망조가 들었다고 이것이 시방 먼 소리여? ㉤인사불성도 유분수제 물에 안 잠기는 썩 당나무까지 폴아묵자니, 이러다가는 조상 뒷등 폴아묵자는 소리는 안 나올는지 모르겠구만. 허허.”

자리실 영감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는 표정이었다.

“까놓고 말해서 뒷등에는 조상 유골이나 있제마는, 당나무에 귀신이 붙었다고 한게 그런가 부다 하제, 당산 할아버지

나 할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봤소?” / 삼식이는 말을 해 놓고 눈길을 돌렸다.

- 송기숙, 「당제」

*목물: 나무로 만든 물건을 이르는 말.

*지벌: 신(神)이나 부처에게 거슬리는 일을 저질러 당하는 벌.

7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 드러나 있다.
- ③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바라본 다른 인물들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 ④ 여러 인물들의 내면을 서술하여 등장인물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과거에 경험한 사건을 회상의 형식으로 삽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74.

〈도깨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제 때 마을 사람들이 밥을 가져다주는 제의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다.
- ② 마을 사람들을 홀리고 다닌 적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존재이다.
- ③ 초현실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어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존재이다.
- ④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존재이다.
- ⑤ 가상의 존재이지만 당제가 있을 때 실제 인간이 그의 대역을 하고 있는 존재이다.

7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상대를 비아냥거리고 있다.
- ② ㉡: 볼 수 있는 사례를 들어 당나무를 가공하여 목물을 만들어 보존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
- ③ ㉢: 당산 할아버지나 당산 할머니를 노하게 하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협박의 뜻을 담고 있다.
- ④ ㉣: 속담의 상황을 활용하여 마을이 수몰되는 상황에서 잇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상황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당나무를 지키는 것이 조상의 묘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7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 작품은 70~80년대의 농촌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국가가 주도한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전폭적 지원을 받던 공업과 달리 농업은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었기에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조절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정책으로 인해 노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농민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졌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실상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전통을 지키려는 세대와 전통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현실적 이익을 따르고자 하는 세대의 모습을 통해 농촌의 공동체적 질서가 붕괴되어 가는 모습도 세밀하게 그려지고 있다.

- ① ‘촌놈들 쌀값은 농사짓는 사람 따로, 값 매기는 사람 따로냐 이 말이여?’라는 질문은 농민들이 노동의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즈그덜이 맨드는 텔레비·냉장고·전기다마·농약, 이런 것은 즈그들 기분 내키는 대로 값을 매김시로 말이여’에는 농사짓는 농민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과 비교하여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다른 나라 것을 절대로 수입을 못 하게 해 놓고 즈그들 것만 풀어서 두 벌 시 벌로 재미를 보거든’에는 공급량을 조절하여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만을 육성하는 정책 당국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저절로 굴러 들어온 돈을 발로 차 넘기잔 말이구만이라.’에는 전통의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현실적 이익을 따르려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윗 당나무도 동네 있고 당나무 있제 동네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는디, 당산 할아버지는 거기서 무얼 하실 것이요?’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전통을 유지, 계승하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황록색의 그늘로 덮여 있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문득 오른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떨림은 이내 수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반복되었고 그녀의 오른쪽 시야에 잡히는 산과 나무와, 색색으로 치장된 간이매점들도 따라서 순간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을 들어 눈두덩을 지그시 눌러 보았다. ㉠눈꺼풀의 경련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 온 익숙한 증상이었으므로 눈두덩을 압박한 몸짓 그대로라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기는 하였다.

기다란 낭하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때도 양쪽의 흰 벽과 침묵하는 천장이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그녀의 손은 눈두덩을 짓뭇개고 있었다. 그러나 면회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낭하 따위는 없었다.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을 거쳤을 뿐이었다.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반팔 수의 밑으로 희디흰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네모반듯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확실히 둘로 갈라져서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그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한 겹 쇠망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는 두 손을 각지 끼워 잠재우고서 그녀는 맥없이 남편의 등 뒤, 약간의 얼룩과 손자국이 묻어 있는 잿빛의 벽을 쳐다보았다. 그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다 후후 입김을 불어 대고 그 입김을 발길질로 닦아 내고 있다는 몸짓을 해 보였다.

[A] 장식 없이 숫자판만 커다란 벽시계는 소리도 날카롭게 면회실을 울리고 그녀는 마침내 흰 벽의 얼룩 보기를 끝내고 남편을 본다. 우리 속에 갇힌 짐승의, 그러나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 또한 그녀를 본다. 지난번 경주의 감기는 다 나았는가, 라는 질문이 오면 한참 뒤에 그녀는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는 대답을 보낸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는 말이 쇠망을 건너오면 시골의 사촌 형님네에서 마늘이 왔다는 대답이 다시 쇠망을 건너간다. 반들반들 닳아 있는 윤기 나는 나무 의자와 되풀이되는 헛손질의 쓴맛이 그녀를 사로잡을 즈음, 남편은 또 한번 마음 편히 지내라고 당부하며 아주 커다랗게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미미하게 웃음을 한 조각 내어미는 것이다. 계속되는 헛손질이 끝나고 말았다는 뜻의 마지막 카드를 얼굴에 남기고 그는 들어온 문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그녀 또한 몸을 돌이켜 이쪽 세상으로 빠져나온다.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차단되어 홀로 저쪽 담벼락 속으로 넘겨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나중에 가서야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특별 대책이 있었다 한들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는 하였지만 처음에 그녀는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하였다. 애초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이 많아 월세만으로도 최소의 호구지책을 해 나갈 수 있는 낡은 기와집 아래에 존재해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그 생각이 어느 무렵부터인가 주장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는 주장만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어 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

을 터득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그녀 스스로 남편의 자리를 비워 두고 있는 셈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어느 늦은 가을 그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다섯 살 난 딸 경주를 데리고 과천의 동물원에 가게 된다.

가로세로 일 미터쯤의 유리 상자들이 벽을 따라 즐비하게 세워진 그곳은 들어서자마자 썩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겨 주었다. 새들의 오물이나 잡겨 있는 실내 공기 탓이겠지만 냄새만으로도 이쪽 세상과 저쪽의 바깥 세상을 확연히 구분 짓게 한다. 그녀는 문득 남편을 생각했다. 냄새는, 특히 이런 유의 퀴퀴한 냄새는 언제나 남편을 떠올리게 하였다. 악취가 풍겨 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이 세상의 썩고 있는 쓰레기들을, 막혀 있는 시궁창을 치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조류원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다. 잠깐 사이에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났었냐는 듯이 코는 말짱해져 큼큼거리던 것도 멈추었다.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못전달 일이라곤 별로 없는 것이다.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차가운 발부리만이 일렬횡대로 즐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이다. 죽은 나뭇가지 위에 동그마니 얹혀져서 참새·콩새·종달새 등이 유리 벽 바깥의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다.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이랑에서 정답게 울어 주던 바깥세상의 새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보임은 무거운 침묵 때문인가. 고목의 동치를 잘라 시멘트로 탄탄하게 붙박아 놓은 가지마다엔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았다. 새들은 두툼한 가지 끝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별안간 후드득 날아올라 다른 가지로 옮겨 앉는다. 그러고는 이내 부동의 자세이다. 아이들은 유리 벽에 매달려 새들을 유혹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도 하고 후이익후이익 새 울음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조류원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다. 부리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팻말을 통해 잿빛 깃털의 음울한 눈매를 한 그것과 맞부딪히고 나서 그녀는 적잖이 실망을 한다.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오르곤 했던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곧이곧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그녀는 잠시 의아해한다. 그리고 이내 깨닫는다. 노래,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로 불려진다.**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날것에 불과하였다. / “저 새가 바로 방울새란다.”

그래도 그녀는 딸애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한 소절 한 소절을 따라 부르며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이. 간밤에 고 방울 어디서 따 왔니. 쪼로롱 고 방울 어디서 따 왔니……. 글썸, 어디서 따 왔을까.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 생각해 보곤 했었다.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따 오지 못한 것일까. **두터운 유리 벽 안에 갇혀서, 푸른 하늘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한은 방울을 따올 수 없을 것이 분**

[앞부분 줄거리]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놓치고 만다. 강원도 양양의 선림원 사지에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를 들르며 답사 일행을 찾는다.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채 목을 곳도 없이 밤을 보내던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은 답사 일행과 그들이 탔던 버스를 찾아 주겠다고 나서게 된다.

청년 중에 한 사람은 두루마리 화장지 두 개를 잇대어 놓은 크기만 한 “텐찌”를 갖고 있었다.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온 듯했는데 그 손전등은 새 전지를 갈아 끼운 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매우 밝았다. 청년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관광버스들의 소속 회사 표지와 번호판을 손전등을 휘적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찾았다. 낙산에서도 청년은 그 손전등을 켜서 휘적고 다녔었지만 그것이 내 시선에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는 설악산 주차장에서였다. 내게 심어진 손전등의 위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었고 손쉽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텐찌보다 몇십 배의 밝은 축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청년은 가지고 있었지만 버스는 찾지 못했다. 버스는 새보다 몇백 배의 부피를 더하고 있는데도 그랬다.

어느 날 밤, 누나와 나는 한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집을 후리러 다녔지만 누나와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다. 그날도 역시 텐찌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었다. 구태여 텐찌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까닭이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간단했다.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트는 초가집이었고, 초가집인 이상, 필경 어느 집들처럼 대여섯 군데의 새집은 있을 것이라는 일이었다. 우리 집도 텐찌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역시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은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우약꼬, 니 말이 딱 맞따대이. 우약꼬, 내가 입때까지 고 걸 생각 못 했대이, 니 말이 맞대이.”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삼작을 단아걸어서 텐찌꾼들의 범접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누나와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집을 후릴 수가 있지 않은가.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를 발견한 우리는 흥분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했다. 우선 뒷방의 문을 활짝 열었다. 너무 어두웠기에 방에 켜 둔 불빛을 이용하자는 심산에서였다.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탔다.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집의 이영의 켜에도 새집들이 들어 있었다. 두 번째까지는 허탕을 쳤지만 세 번째의 집에서 나는 새를 잡았다. 살아 있는 새와의 첫 번째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세 번째의 구멍 집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자마자 손끝에 와 닿는 몽클한 온기는 분명 새의 깃털이었다. 신선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 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나는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무작정 각 움켜쥐었다. 거의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선 누나가 말해 준 대로 딱 움켜쥐는 방법밖에 달리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의 만남이란 언제나 방법이 서툴게 마련이고 그래서 실패의 확률은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이었다. 그리고 새는 눈으로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었을 터였지만 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다. 내가 새의 깃털을 딱 움켜쥐는 순간, 나는 손바닥이 물

어뜨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동시에 받은 것 같았다. 착각이었는데도 모를 그 아픔에 나는 소리 치면서 구멍 집에서 손을 빼냈고 내가 손사래를 치는 동안 새는 구멍 집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내가 구멍 집에서 얼떨결에 손을 빼내어 흠뻑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 집에서 빠져나온 것과 누나가 무등 태우고 있던 나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닫은 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허공을 헛디디면서 마당으로 나가 뒹굴었다. 누나는 닫은 방문을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마당으로 나뒹구는 나를 바라보았으나 달려와서 부축할 의향은 전연 없어 보였다.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은 내가 누나를 알고 난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새 잡았대이.”

그것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새가 누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새가 방으로 들어갔대이.”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 지어 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물론이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리는 없었다. 더구나 새가 방으로 날아들었다는 것은 얼살을 먹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중략)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와의 숨 가쁜 혼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놀란 새가 뛰거나 버둥거리는 소리의 중심에다 무작정 우리들의 몸뚱이를 날려 던졌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가 나래를 퍼덕이는 소리는 전연 엉뚱한 곳에서 들려오곤 했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일어나 그 소리의 중심부에다 레슬링 선수처럼 아낌없이 몸을 던졌다. 새가 퍼덕이는 소리보다는 우리들의 팔다리가 벽과 방구들에 부딪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무릎이며 팔꿈치와 뒤통수 같은 곳이 아리거나 쓰렸고 온 몸뚱이는 물을 뒤집어쓴 듯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새와의 혼전은 긴 시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새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우리는 새의 날개깃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나가 말했다.

“영구야, 가만있어 보래이.”

누나는 어둠 속을 더듬거리서 내 두 손을 꼭 잡아 쥐었다. 누나의 손은 잿불에 물었다 꺼낸 고구마같이 뜨거웠고 코에서는 단내가 풍겼다. 새는 없었다. 형용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언제 그런 불상사가 빚어졌는지 몰라도 열려 젖혀진 방문 밖으로부터 희미한 그림달이 새어 들고 있었다. 벌써 새벽이었다.

우리 네 사람은 답사 일행을 찾기를 포기하고 설악산 입구 여관촌에서 곧장 승용차를 돌려서 오색으로 돌아왔다.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다. 해가 뜰 시각은 아직도 두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청년들의 권유대로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줄면서 해뜨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계령 계곡의 새벽은 몹시 추웠다.

- 김주영, 「새를 찾아서」

*얼살을 먹어서: 뜻밖의 일을 갑자기 당해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8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 ② 공간을 이동하며 변화하는 인물의 심리를 추적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갈등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의 진행 과정을 현장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 ⑤ 여러 인물의 시선을 통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8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새를 잡기 위해 불을 켜 놓은 윗방의 문을 활짝 열어 두었다.
- ② '나'와 누나는 텐찌꾼들로 인해 새를 잡는 데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 ③ '나'는 구멍 집을 빠져나온 새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흥분하였다.
- ④ '나'는 낙산과 설악산 주차장을 찾아 헤매다 허탕을 치고 오색으로 돌아왔다.
- ⑤ 청년은 매표소에서 가져온 듯한 텐찌를 이용해 답사 일행의 버스를 찾으려 하였다.

8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텐찌꾼들이 새를 잡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만족감이, ㉡은 텐찌 없이도 새를 잡는 데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다.
- ② ㉠은 텐찌꾼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은 텐찌꾼보다 더 큰 성과를 얻었다는 기쁨이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다.
- ③ ㉠은 새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흥분이, ㉡은 새를 잡기 위해 그동안 시도해 왔던 방법이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다.
- ④ ㉠은 새를 잡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기쁨이, ㉡은 새를 잡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다.
- ⑤ ㉠은 새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흥분이, ㉡은 비록 방 안에 갇혀 있지만 처음으로 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흥분이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다.

8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주영의 「새를 찾아서」는, 주인공인 '나'가 현재의 시점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유년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작품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림원 사지라는 절터로 답사 여행을 떠나기로 했지만 버스를 놓치게 되고, 먼저 여행을 떠난 일행을 찾아 헤매는 상황 속에서 유년 시절 누나와 새 잡이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유년 시절과 현재의 경험을 교차하며 삶이란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고통과 수고가 수반되고 때로는 실패의 경험을 맛보기도 한다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 ① 유년 시절의 '나'는 새를 잡기 위해, 현재의 '나'는 답사 일행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시점의 경험들은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유사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유년 시절의 '나'가 텐찌를 갖지 못해 새를 잡는 데 실패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현재의 '나'는 답사 일행의 버스를 타지 못함으로써 선림원 사지를 찾는 데 실패하는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군.
- ③ 유년 시절의 '나'와 누나가 어두운 방 안을 헤매며 새를 잡으려고 했던 경험과 현재의 '나'와 청년들이 어두운 주차장을 헤매며 답사 일행의 버스를 찾는 경험은 모두 실패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유년 시절의 '나'가 새를 잡으며 무릎과 팔다리가 아프고 땀을 흘린 것과, 현재의 '나'가 답사 일행을 찾으며 주차장을 헤매고 추위를 느끼는 것은 모두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과 수고라고 볼 수 있군.
- ⑤ 유년 시절의 '나'가 새를 잡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현재의 '나'가 답사 일행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통해 삶이란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주제 의식이 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석이 나오는 순간 **운명의 여신이 한 번 더 미소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보니 사랑에 빠졌을 때 운명이나 행운을 들먹거리게 되는 것은 꽤나 보편적인 일인 모양이다.

허석은 내가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진희 아직 안 잤구나, 하면서 옆에 나란히 앉는다. 무릎 위에 얹힌 그의 손이 참 예쁘다. 키가 커서 그런지 손가락이 참 길다는 생각이 든다. ㉑저 손가락으로 기타 줄을 튕길 것을 상상하니 어쩐지 그의 옆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인다.

허석은 별을 보는지 잠시 아무 말이 없다. 마당 구석에 있는 도토리 감나무의 가는 가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흔들린다. 허석이 그쪽으로도 얼핏 고개를 돌려 본다. 그 몸짓이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데 그 쓸쓸함이 왜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나는 난데없이 애뜻한 기분이 된다.

그렇게 쓸쓸해 보이는 채로, 애뜻한 채로 우리는 한참이나 말없이 밤하늘만 보고 있다. 흐르는지 멈췄는지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갑자기 허석이 낮은 목소리로 “진희야” 하고 부른다. 내가 그의 낮은 목소리만큼이나 조용하고 느린 동작으로 그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안는 게 아닌가. ㉒그의 팔이 너무도 무거웠다. 아니 사실은 그의 팔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모든 신경이 어깨로만 가 있어서 내 몸 전체가 온 힘을 다해 그의 팔 하나를 받치고 있는 듯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뿐이었다. 무거운 팔 하나를 그렇게 내 어깨에 올려놓고 그가 여전히 밤하늘을 보며 꿈속처럼 말한다.

“며칠 동안 즐거웠는데, 벌써 헤어지게 됐구나.”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㉓소가 풀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의 목소리만을 통째로 삼켜 버린다. 조금 후에야 소의 밥통에서 도로 끄집어내져 씹히는 풀처럼 그의 말을 도로 새김질 해 보자 그제서야 그의 말뜻이 머리에 들어온다. 헤어지게 됐구나, 라고.

“언제 가는데요?” / “응. 내일.”

허석의 짧은 대답은 내 가슴을 짝하게 찌른다. 그러면, 허석이 떠난다는 말인가?

나에게 있어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 이별에 대한 항체가 분비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음식물이 들어가자마자 침이 분비되는 것과 같다. 이별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자 그것을 녹여 없애기 위해 내 마음속에서는 또 내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허석을 향한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져 있는 참이라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나는 가까스로 성공한다. ㉔진짜 나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나가 허석에게 말한다.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 짐짓 명랑한 목소리로. / “우리 고향 어떠셨어요? 인상 좋았지요?”

내 어깨 위에 얹은 허석의 팔에 약간 힘이 들어간다. 허석이 앉은 채로 내 쪽으로 몸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나는 조금 안긴 자세가 되어 허석의 눈을 마주 본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허석이 부드러운 보이는 입술을 움직여 말한다. / “응. 특히 진희 넌 잊지 못할 거야.”

나는 그다음에 그가 나를 와락 안아 버리지나 않을까 하고 상상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 그때 마침 삼촌이나 이모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화들짝 팔을 풀고는 괜히 어깨를 툥 다든가 하면서 은밀한 짓을 들킨 사람의 무안함을 무마해 본다? 그건 너무 유치한 것이다. 그렇다고 “우린 사랑하니까 상관없어요”라고 하면서 계속 포옹을 하고 있을 자신은 없고…… 어떻게 시치미를 떼야 하나, 그 궁리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나를 와락 안아 버리지는 않았다. 대신 내 어깨 위에 얹었던 팔을 쳐들더니 가볍게 등을 몇 번 토닥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몸을 일으키고는 “내일 아침에 보자” 하면서 다시 삼촌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아니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와서 신발을 신는다. 역시 변소 쪽에 불일이 있는 모양이다.

(중략)

허석이 그렇게 떠나 버린 후에도 내 마음의 평정은 쉽게 되찾아지지 않았다. 나는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을 무렵 어느 날 나는 정말 우연히 제방 길을 걷게 되었다. ㉕지난여름에는 일부러이 길을 피해 다녔던 것인데 그 이후 습관이 되어 제방 길 쪽으로는 거의 걸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오랜만에 나와 보는 길이였다.

처음 허석을 만나던 날처럼 노을이 짙게 내려 깔리고 있었다.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며 나는 처음 허석을 만나던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되는 것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일이었다. 허석이 하모니카를 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허석처럼 키가 컸다. 그 옆에는 염소까지 묶여 있었으며 게다가 그 염소의 흰 털이 노을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삶이 나를 조롱하는 데 대해 화가 났다.** 왜 내게 허석과의 만남을 이처럼 생생하게 기억시키려는 것인가. 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내 눈앞에 연출하여 일껏 벗어나려고 애쓰는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을 더 깊이 각인하는가. 화가 난 나머지 나는 삶에 맞서서 삶을 비꼬아 주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하모니카는 없는가? 기왕 모든 것을 재현하려면 하모니카까지 갖추지 않고? ……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 키 큰 남자가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불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억하건대 허석을 처음 만났던 날 들었던 바로 그 멜로디였다. 순간 그 남자가 허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내 얼굴에는 피가 몰렸다. 한 발 가까이 가서 보니 노을을 배경으로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그의 옆에서 염소가 짧은 다리를 버티기며 줄이 묶인 채 이쪽저쪽으로 고갯짓을 하고 있었다. 염소와 하모니카의 완벽한 실루엣이 그의 옆모습을 감쌌다. 그러나 물론 허석은 아니었다.

그제서야 나는 삶의 경고를 깨달았다.

경악한 나는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남자 쪽으로 마구 달려가 보았다. 그렇다. 가까이 가서 보니 더욱 모 든 것이 명백했다. 그날 하모니카를 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었다. 허석이 아니었다. 하모니카와 염소의 실루엣은 허석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내 사랑이 이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는 마땅히 허석이 아닌 이 더러운 낯빛의 구부정한 아저씨를 사랑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 거였다.

멍하니 서 있는 내게 하모니카 아저씨가 말했다.

“너 하모니카 소리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몇 살이니? 귀엽게 생겼구나. 이리 가까이 와 봐, 아저씨한테. 자, 어서.”

제방 길 옆에 문둥이가 산다느니 폐병 환자가 산다느니 하는 말이 헛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뒤도 안 보고 도망을 쳐야 했다. 집에 가까이 와서야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삶에게 조롱당한 것이 분해서만은 아니었다.

우는 나를 보면서 나는 아직 내게 사랑에 대한 환상이 남아 있었음을 알았으며 내 몸속에 물기로 남아 있는 그 환상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배설시켜 버리기 위해서 울 수 있는 한 실컷 울었다.

- 은희경, 「새의 선물」

8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타인들의 시선을 느낀 '나'의 행위가, [B]에는 타인을 바라보기 위해 취하는 '나'의 행위가 드러나 있다.
- ② [A]에는 자신이 행했던 일을 합리화하려는 '나'의 태도가, [B]에는 자신이 행했던 일을 후회하는 '나'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A]에는 소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나'의 기대가, [B]에는 좌절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A]에는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인물의 내면 상태에 대한 '나'의 추리가, [B]에는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나'의 고백이 드러나 있다.
- ⑤ [A]에는 앞으로 벌어질지 모른다고 여기는 일에 대한 '나'의 상상이, [B]에는 눈앞에 벌어진 일을 확인하면서 떠올리는 '나'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8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에 대한 연상의 내용을 제시하여 '나'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 감각과 연관된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팔이 몸에 닿은 데 따른 '나'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은 데 따른 '나'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과거의 상황을 제시하여 '나'가 제방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 행동 묘사를 통해 '나'가 제방 길에서 겪은 심리적 충격을 드러내고 있다.

8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를 통해 허석에게 자신의 솔직한 바람을 드러낸다.
- ② '나'는 ㉠를 통해 허석이 자신에게 한 말의 의미를 깨닫는다.
- ③ '나'는 ㉠를 통해 허석과의 관계로 인해 느끼는 감정을 숨긴다.
- ④ '나'는 ㉠를 통해 이별이 주는 강렬한 고통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 ⑤ '나'는 ㉠를 통해 꿈속에 있는 듯한 낭만적 분위기에서 벗어난다.

8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새의 선물」에는 주인공이 사랑의 재인식을 통해 성장을 겪는 과정이 드러난다. 어린 주인공은 운명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관념이 허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만큼 스스로가 성숙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첫사랑을 경험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면서 자신이 그러한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이별 이후에는 자신이 지녔던 사랑의 감정이 사랑하는 사람 자체를 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환상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환멸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 주인공은 사랑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내면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 ① 허석이 모습을 드러낸 것을 '운명의 여신이 한 번 더 미소를 짓는 것처럼' 느끼는 데서 운명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②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몸을 일으키고'가 버리는 허석의 행동은 상대방의 사랑을 갈구하는 '나'의 기대를 좌절시키고 있군.
- ③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은 스스로 성숙하다고 여기던 '나'가 첫사랑의 실패로 인해 겪게 된 내면적 혼란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나'가 염소 곁에 선 남자를 보고 '삶이 나를 조롱하는 데 대해 화'를 낸 이유는 사랑의 감정이 허석 자체를 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 낸 환상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겠군.
- ⑤ '환상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배설시켜 버리'려고 우는 '나'의 행위는 운명적 사랑에 대한 환멸을 경험하면서 내면적 성장을 겪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